

서호인의 '소설처럼'



이것은 과학이 아닙니다만 -SF 앤솔러지 '태초에 외계인이~'

손바닥에 '王'자를 쓴다고 권력을 쥌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생각해보자. 그것이 도사님의 선견지명이었든 같은 동네에 사는 지지자가 덕담 대신 손바닥에 써준 것이든 상관없이 부적이나 사인 같은 것으로 선거에 이길 수는 없다. 그 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반대로 토론회에 '王'자를 쓴 채 등장해 무속신앙에 깊이 연계된 삶을 살고 있음을 저도 모르게 실토한 사실이 과연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 그 또한 모르겠다. 유권자인 우리는 대체로 미신과 무속의 가르침 및 유사과학과 확증편향의 소용돌이에서 되레 자연스럽게 살고 있으므로, 겨우 그런 일로 실망하여 지지를 철회하거나 선택지를 바꿀 일이 있으랴 싶은 것이다.

어쩌다 연애를 하게 되었으니 타로점을 본다. 타로 점도 좋았는데, 궁합도 좋았다. 그렇게 상대와 결혼을 하게 되어 집을 구해야 하는데 요즘 돈 들어오는 인테리어는 따로 있다고 한다. 현관에 해바라기 그림을 두고 살 것이다. 운이 좋다면 무병장수해 살다가 풍수지리가 좋은 못자리에 묻힐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마지않는 현실적인 삶이다. 결코 과학일 수 없는 유사과학을 과학보다 더 깊게 신뢰하고 일상의 척도 삼는 사회에서 손바닥에 부적이 대수겠는가. 아니, 괴이한 언사를 내뱉는 '도사'를 멘토로 생각한다고 하여도 그게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사과학에서는 말 그대로 진리로 존재한다. 이와 비슷한 구조로 우리 중 누군가는 창조론을 진지한 과학적 이론으로 받아들인다. 물리치로나 약물치로 대신 우주의 기운을 빌린 기 치료를 받으려고 한다. 운동과 식이요법 대신 출처 불명의 약품을 먹는다. 성격을 혈액형으로 구별하더니, 이제는 MBTI 간이 검사를 맹신하며 말 한마디에 상대방을 'I' 아니면 'T'로 무 자르듯 나눠버린다.

'태초에 외계인이 지구를 평평하게 창조하였으니'는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한 유사과학을 모티프로 10명의 SF 작가가 쓴 단편을 모은 앤솔러지 소설집이다. 평소 유사과학에 기반한 모든 것들에 단호히 고개를 저었을 법한 SF 작가가 그런 유사과학의 세상은 어떤 것일까. 평범한 노년을 보내던 운씨는 어느 날 숯가루를 탄 물이 몸에 좋다는 등산 친구의 말에 지구 평평설을 믿는 모임에 나가 공짜로 숯가루 물을 얻어 마신다. 짧게 요약한 위 문장만으로는 이게 말이 되는가 싶겠지만, 소설 속 운씨는 나름대로 정보를 선별하고 의심하다 끝내 확신한다. 조상의 음덕을 운운하며 숯가루의 효험을 강조하는 단체의 말은 과학적 사실에는 위배되지만 운씨의 유

이와 같은 이야기는 소설인지 현실인지 분간하기 쉽지 않다. 그 쉽지 않음을 깨닫는 과정이 이 작품을 읽는 재미의 본질일 것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현대인인 척 우리는 유사과학의 외벽으로 세계를 둘러싸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껴온 게 아닐까. 일이 풀리면 풀리는 대로, 안 풀리면 안 풀리는 대로 근거와 논리를 찾아 해결하는 게 아닌, 타고난 운명 혹은 운수에 사유를 맡겨 버리는 편한 방법을 택해온 게 아닐까.

"더 나은 세상을 고민하지 않고, 무엇을 만들고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을 천시하고 조롱하며 배제하는 갇힌 세상을 만들고자"(수록작, 홍지운의 '유사과학소설작가연대 탈회의 번' 중에서) 한 게 아닐까. 그렇게 하여 맞이한 결말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인 건 아닐까. 이게 실화라 싶지만, 부정하기 힘든 오늘날을 우리는 살고 있다. <시인>

아이들 갖기 전에는 용꿈이나 참외꿈이니 하는 태몽을 꾸다고 한다. 아이의 이름을 점성사에게 돈을 주고 받기도 한다. 유도분만이든 제왕절개든 아이는 태어난 일시에 따라 사주팔자를 타고난다. 연초면 사주팔자를 보고 한 해의 운수를 가능하다. 뭇가 잘 안 풀리면 아홉수에 걸렸다고 생각한다. 작년도, 재작년도 아홉수였으니 아홉수가 지속하게 길긴 길다. 이후 아홉수를 벗어나 취업에 성공해 첫 직장을 다니다 이직을 고민하며, 신점을 보러 간다. 거기서 몇 마디 나누니 어떤 결정을 하는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다.

의료칼럼

유착성 관절낭염



최지민 상무365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 전문의

선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유착성 관절낭염이 발병할 위험이 높아진다.

특정한 이유나 계기 없이 통증과 움직임 제한이 특징이며 어깨에서 팔 위까지 통증이 퍼진다. 통증 때문에 옆으로 돌아눕기 힘들고 밤에 통증이 더 심해진다. 스스로 움직일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움직일 때, 모두 움직임 제한이 발생하고 등 뒤나 머리 위로 손을 뻗는 동작이 힘들어 머리 감기, 머리 빗기, 옷갈아 입기 등의 일상 생활에 지장이 생긴다. 통증 또는 동반된 회전근개 건증으로 인해 근력 약화도 나타날 수 있다.

통증은 줄어들지만 움직임 제한이 심해져 일상 생활 동작 수행이 어려운 기간이다. 회복기는 9-18개월로 통증도 줄어들고 움직임 제한도 서서히 호전되는 시기로 자연스럽게 회복된다. 총 기간은 12-40 개월 정도이고 치료를 받을수록 기간은 짧아질 수 있다. 대부분은 수술 없이 보존적인 치료만으로 완치가 가능하다. 통증과 염증을 관리하기 위한 진통제 및 항염증제, 스테로이드 약물 주입, 물리치료 등의 치료와 굳어있는 어깨를 풀어줄 수 있는 운동을 반드시 함께 시행해야 한다. 2-3개월의 보존적 치료에도 반응이 없을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한다.

위와 같은 증상으로 유착성 관절낭염이 의심된다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 어깨의 통증 및 관절운동 제한이 있는 경우 다른 질환들을 모두 감별하고, 그 원인을 알 수 없을 경우에 유착성 관절낭염 진단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감별 질환인 회전근개 파열과의 차이점은 회전근개 파열이 능동적 움직임은 제한되고, 수동적 움직임은 정상인 것에 반해 유착성 관절낭염은 능동적, 수동적 움직임 모두 제한된다.

한의학에서 동결견은 견비통(肩痛), 견비(肩痺), 응결견(凝結肩) 등의 비증(痺證)의 범주에 포함되는 질환으로, 원인은 풍한습(風寒濕) 등 외부의 나쁜 기운이 체내에 들어온 경우, 기혈이 부족하거나 담음이 있는 경우, 외력에 의해 손상을 받은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한의학적 치료는 견우, 견료, 곡자, 외관 등의 혈 자리에 침 치료를 하여 기혈의 순환을 돕는다. 또한 전침과 약침, 온침, 부항, 뜸 치료를 함께 시행하여 통증을 감소시키고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준다. 어혈을 개선시키는 개결서경탕, 오약순기산, 반하금출탕 등의 한약과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려주는 추나치료를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유착성 관절낭염의 진행은 통증기, 강직기, 회복기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통증기는 0-3개월로 통증과 움직임 제한이 심한 초기이다. 통증이 심해 수면이 힘들고 팔을 빨리 움직이기가 힘들다. 동결기는 3-9개월로

社說

전남에 의대 신설 국민 공감대 형성됐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열약한 지방의 의료 수준 개선을 위해 지방 국립대에 의대를 신설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은 관내에 의대를 설립하는 것이 오랜 숙원인데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으로 의대 설립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국립대가 있는 목표와 순천에 의대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으려는 정부의 정책 탓이 크다. 정부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동 당시 의대 정원을 오히려 10% 감축해 연간 3058명으로 묶여든 이후 손을 놓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또 한 가지 눈여겨 볼 점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의대 정원을 최소 300명에서 1000명 더 늘려야 한다고 답한 점이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가 2.5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3.7명에 훨씬 못 미치는 꼴짜 수준이다.

지방 국립대 의대 신설 공감대는 더불어민주당 김원기(목포) 국회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됐다.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전국 20-60대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지방 국립대에 의과대학과 부속 병원을 신설하는 것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9.7%(799명)가 찬성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74.8%가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의료 인프라의 수도권 쏠림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방 국립 의대 신설이 인구 감소를 막아 지역 소멸의 해법이 될 것이란 기대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차체에 국민 여론을 반영해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 국립대에 의대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 전남도도 매년 1만 7000여 명의 암 환자를 포함해 전남 주민 6만 여명이 서울 '빅5 병원'을 찾는 현실을 반영해 의대 유치가 성공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에게 '장벽의 전당'인 광주 예술의전당

광주 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 리모델링 공사 후 재개관했지만 장애인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치대 문에 부딪힐 위험도 있었다. 대극장 공사 후 재개관했지만 장애인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장애인 이용에 편의를 더해야 할 전당이 오히려 장애인에게 '장벽의 전당'이 되고 있는 것이다.

편의시설도 열악했다. 소극장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없었고 그나마 대극장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있지만 입구가 좁아 전동휠체어는 아예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전당이 최근 300억 원을 들인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재개관했지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여전히 불편해 반쪽을 사고 있다. 광주 일부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해 보니 장애인들이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를 통해서만 전당 공연장에 들어갈 수 있는 폐쇄적인 구조가 개선되지 않았고, 주차장 내 경사로가 팔다리 엘리베이터까지 가기조차 힘들었다.

전당 문에 부딪힐 위험도 있었다. 대극장은 지상 2층까지 있지만 내부에는 계단만 설치돼 있어 장애인들은 올라갈 수 없는 점도 문제였다. 편의시설도 열악했다. 소극장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없었고 그나마 대극장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있지만 입구가 좁아 전동휠체어는 아예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 또한 안내데스크도 너무 높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했으며, 맞은편에 설치된 키오스크 터치 화면도 너무 높아 손이 닿지 않는 휠체어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을 정도였다.

지하주차장을 벗어나 1층에서도 어려움이 따랐다. 소극장 입구에는 점자블록 위에 매트가 깔려있어 시각장애인이 알아볼 수 없게 돼 있었고, 자동문이 열리는 곳이 아닌 영동한 장소에 점자블록이 설

예술과 문화를 즐길 권리는 장애인도 마찬가지이다. 장애인들이 있을 수 없으며 모두가 평등하다. 관계 당국은 "35년 전 건물이 지어질 당시 장애인 법규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이 초래되는 것 같다"고 변명할 게 아니라 즉각 개·보수해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문화·예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경제적 자립 토대를 만들어 자발적 조기 은퇴를 한 사람들을 파이어(FIRE,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족이라고 부른다. 선망의 대상인 이들 파이어족의 연령대가 30대까지 내려왔다고 한다. 문제는 이들이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어들이는 방법이 '부동산 투기'라는 점이다. 대부분 겹 투자, 즉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은 집을 구입해 전세 세입자를 구한 뒤 시세 차익을 보고 팔아 넘기는 방식이다. 적은 돈으로

원탁법 시행 이후 4개월간 파헤치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 6063명 가운데 42%가 무자본 겹 투기와 동시 진행 수법에 당했다. 동시 진행은 전셋값을 매매가와 같거나 전셋값보다 더 높게 받아 매수 가격을 충당하면서 단기간에 주택 수십, 수백 채를 사들이는 수법이다. 전세 보증금 규모 1억원 이하가 49.3%였으며, 20-30대가 다수를 차지했다. 젊고 가난한 사람을 타깃으로 해 주택으로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비싼 주택을 사 호가를 올리며 쉽게 돈을 버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하늘을 찌를 듯이 오르고 있어 사들여야 하는 행태이다.

군중심리는 처음 사용한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귀스타브 르봉(Gustave Le Bon)과 가브리엘 타르드(Gabriel Tarde)는 군중심리를 '다수를 따르는 게 득이 된다'는 생각에 의견·행동을 따라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부동산으로 쉽게 돈을 버는 투기가 일상처럼 만연하면서 공무원, 가정주부 등 평범한 이웃들까지도 그 대열에 너무도 쉽게 들어서고 있다. 모두가 함께 살아야 할 도시를 고층 아파트와 투기의 장으로 만들어 버린 이들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시급하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15만여 명이 함께 100조원에 달하는 주택을 구매하고, 1명이 수백 채를 사들이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에 144채, 인천에 468채, 경기도에 181채 등 수도권에서만 793채를 사들이는 사람이 있었으며, 미성년자 249명도 1078억 원에 달하는 825채를 매입했다. 반면 주택을 살 수 없는 서민들은 전세 사기에 내몰리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지

군중심리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귀스타브 르봉(Gustave Le Bon)과 가브리엘 타르드(Gabriel Tarde)는 군중심리를 '다수를 따르는 게 득이 된다'는 생각에 의견·행동을 따라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부동산으로 쉽게 돈을 버는 투기가 일상처럼 만연하면서 공무원, 가정주부 등 평범한 이웃들까지도 그 대열에 너무도 쉽게 들어서고 있다. 모두가 함께 살아야 할 도시를 고층 아파트와 투기의 장으로 만들어 버린 이들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시급하다. /원혜성 정치부 부국장 chadol@

기고

용아(龍兒) 생가 연계해 문화관광벨트로



김용하 용아 박물관기념사업회 부이사장

학 동인 활동과 '해의문화파', '극예술연구회' 회원으로 참여하여 입센 원작의 '인형의 집' 등 연극 공연을 위한 몇 편의 희곡을 번역하기도 하였다.

주변지역을 정화하여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우리 광주에서는 아시아 문화의 중심도시라는 위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약한 환경과 행정당국의 무관심속에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답답한 실정이다.

그는 정지용, 김영랑 등 동인들의 시집과 문예지를 간행해 주는 활동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작품집은 내지 못하고 1938년 서울에서 별세했다. 따라서 그의 시나 작품은 많지 않지만 일제치하의 척박한 현실에서 사비를 들여가며 문예지를 간행하여 우수한 문인들을 소개했고 많은 번역 시편 등을 통하여 해외문학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점은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선구적인 공적이라 할 것이다.

특히 2018년 광산구청이 용아문학상을 제정해 제1회 수상자로 전 문화체육관광인 도종환 시인을 선정하여 상금 2000만원을 수상하고 용아 박물관 선생 연구학자 7명에게 학술지원금으로 100만원씩을 지원하였으나 이후로는 예산 확보가 안돼 3년간 용아문학상을 중단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빚어졌다.

이와 같이 시작, 출판, 평론, 번역, 희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서정성과 문학적 감성으로 문학지 출판 등 문화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말과 글을 통해 민족의 얼을 선양한 민족주의적 활동을 전개했는데도 용아 박물관 선생을 기리고 본받기 위한 광주 지역의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다행히 2021년 말 용아기념사업회 제2대 이사장인 최상준 회장이 1억 원의 상금을 쾌척, 2022년 맨부커 소설문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한강씨를 제2회 용아문화대상 수상자로 시상했고 올해는 제3회 수상자로 백희나 작가를 선정해 12일 시상식을 거행했다. 아울러 용아 기념 전국 학술심포지엄과 용아 다큐멘터리 상영 등을 호남대학교에서 하게 된다.

그동안 민간단체인 용아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수십 회의 각종 행사와 매년 1000여 명이 전국적으로 참여하는 용아 백일장대회를 연 30회 이상 개최하면서 생가와 묘역관리 등을 해오고 있다. 특히 자손들과 연대하여 용아기념관 건립사업 추진, 시 단위 조례와 국가 기념문화재 사업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왔으나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해 아쉬운 일이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문화의 발전과 문학의 창달, 훌륭한 고장의 인물을 널리 선양해 고향의 명예를 드높이고자 하는 뜻있는 문인과 시민들이 십시일반 자발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이루어진 일이다. 앞으로 광주시와 광산구청 등 행정 당국이 나서 용아 생가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과 함께 인근 황동강 늘지와 수변공원 어등산을 연계한 문화관광 자원벨트화로 예향 광주의 위상을 드높이고 관광 자원화로 지역경제 발전에도 일조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전남도에서는 용아 선생과 같은 시대에 교류하면서, 출판 지원을 받는 등 활동했던 강진의 김영랑 생가는 국가 기념문화재로 지정받아 비평문학관을 건립하고